

일본 젊은 층의 소비침체

일본경제 침체 원인의 하나로서 장기적인 소비침체를 들 수 있음. 그 중에서도 일본 젊은 층의 소비 약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일본경제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음. 젊은 층 소비의 약화추세는 젊은 층의 인구감소, 고용환경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일본 젊은 층의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표 1〉 20·30대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전체	식료	맥주	외식	자동차	자동차부품	휴대전화 통신료	국내여행	스포츠시 설 사용료
2000년	18.6	16.9	15.2	22.4	32.5	39.8	35.4	13.4	15.4
2005년	16.8	15.1	12.1	21.3	27.7	33.3	25.0	9.5	11.1
2009년	15.5	14.0	12.1	19.9	19.0	22.1	24.3	9.6	7.9

자료: 総務省「家計調査」(2인 이상 세대), 第一生命經濟研究所에서 재인용

- 젊은 세대는 고정된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호기심이 많고 창조적인 소비활동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창출하여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젊은 세대가 가지는 이와 같은 역할이 2000년대 이후 크게 약화되면서 일본 내수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20 · 30대 소비가 전체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0년 18.6%에서 2009년 15.5%로 3.1%p나 하락하였음.
- 이와 같은 젊은 층의 소비침체현상은 음식, 주류, 자동차, 통신, 여행, 스포츠 등 젊은 층이 소비를 주도해야 할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 자동차의 경우 동 기간 젊은 층의 소비비중은 32.5%에서 19.0%로 크게 하락하였고 자동차 부품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음.
- 맥주의 경우 동 기간 젊은 층의 소비비중은 15.2%에서 12.1%로 하락하였음. 스포츠 시설 이용에서도 젊은 층의 소비비중이 크게 저하하였음.
- 젊은 층의 소비비중이 감소한 원인으로 젊은 층의 인구감소, 그리고 고용과 소득환경의 급격한 악화를 들 수 있음.
- 총무성 인구추계에 의하면 15-35세 연령대의 인구는 1990년 3,477만 명(총인구비율 28.1%)이었으나 1994년을 피크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 10월에 2,909만 명(22.8%)으로 감소하였음.
-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인구감소로의 전환시점이 빠르며 향후 젊은 층의 인구감소추세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젊은 층의 고용과 소득여건은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 경기악화로 인한 임금삭감, 젊은 층의 저소득층 비율 증가 등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임.
- 총무성의 조사에 의하면 세대주가 20대인 세대(2인 이상)의 연간소

득을 비교해본 결과 2000년에 비해 2009년에 저소득 계층의 비율은 높아진 반면 고소득 계층의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예를 들면, 400-550만 엔 소득계층은 2000년 39.6%에서 2009년 30.3%로 하락한 반면, 200-350만 엔 소득계층은 20.0%에서 30.0%로 증가하였음.
- 일본 젊은 층의 소비침체 현상은 인구요인과 더불어 소비여력 약화에 크게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일본의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소비시장의 활성화, 특히 젊은 층의 소비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임.

- 이를 위해서는 젊은 층의 고용과 소득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일본정부는 기업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임.
- 나아가 일본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단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第一生命經濟研究所經濟調査部(2010. 4.26), 「衰退する若者消費の分析」